성 찬 분 급 보좌 박종갑 장로 인 도 자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Prayer 다 같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열어 보이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해 인 사 New Year Greeting 함 께 서 서

찬 송 358장 함 께 서 서

새 해 파 송 Sending to Serve 함 께 서 서

인도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고 2007년 새해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 있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다같이: 주여,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제22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송구영신예배

오후 10:30 **예배인도 : 이진우 목사**

전 주	Prelude	반 주 자
예배의 부름	Call to Service	인 도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찬 송	37장	함 께 서 서
공 동 기 도	Prayer	함 께 서 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한해를 마감하는 새해를 맞는 첫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해도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해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셨건만, 부족한 저희들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했고 사랑하기보다도 사랑받기 원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들의 삶은 항상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 송	Hymn 434	다 같 이
성 경 말 씀	요한복음 13:4-17	인 도 자
설 교	종의 영성	이진우 목사
찬 송	Hymn 347	다 같 이
세 족 식	Maundy	인 도 자
찬 송	217장	다 같 이
성 찬 교 독	Responsive Reading	다 같 이

인도자: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성찬을 받기 위하여 나아오십시오.

다같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위하여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인도자: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다같이: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비우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인도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같이: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로 갑니다.

참회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 같 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복음의 증언 요한복음6:35,51,53-56 낭 독 자

여러분 복음의 증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도의 증언 로마서 3;23-25,8:11 낭 독 자

여러분 사도의 증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받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으로초대 Invitation of Communion 다 같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